



## 교도소 여가활동이 폭력성향의 감소, 사회적 기술함양,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s of Leisure Activities on Prisoners' Violence Reducing Behavior, Social Skills-Cultivation and Self-Control at Correctional Institute

박종구\*\*

Park, Joung-Koo

**요약** : 본 연구는 교도소의 여가활동이 폭력성향의 감소, 사회적 기술의 함양, 자기통제력의 향상 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160명의 남성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통계적 분석방법은 여가참여의 차이는 t 검증, 여가활동별 긍정적 심리효과는 일원변량분석(ANOVA),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가활동의 참여자들은 사회적 기술의 함양에만 비참여자보다 p(.05 수준에서 더 긍정적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가활동 중 명상/종교활동이 폭력성향의 감소에, 재소자와 의견이 다를 경우 대화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자기통제력에는 '여가활동'과 '명상/종교활동'이 동일하게 높은 효과가 나타났다. 사회적 기술함양에는 '운동장 달리기'(공놀이, 철봉운동, 근력운동), '영화상영(TV 시청 포함) 감상 순으로 높은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건전한 국민정신을 계도 및 범죄적 악성 제거로 자력개선 의지를 촉진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훈육중심의 '정신교육'과 '교화강연' 활동은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 심리효과들은 거의 없었다.

**핵심용어** : 여가프로그램, 폭력성향, 사회적 기술, 자기통제력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risoners'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at the correctional institute on their positive-psychological behaviors such as violence reduction, social skills-cultivation and self-control improvement. Data were collected from 160 male inmates at two correctional institutes. Three statistical analyses (i.e., t-tests,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tilized in this study.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lowest violence inclination was found in the group with participation in the leisure activities, followed by the group with meditation/religious participation. Results also revealed that the highest prisoner's social skill cultivating effort was observed in the group with the ground leisure activities (such as running the track, chin-up, and muscle building workout at the ground) followed by the group with watching a movie or tv, whereas self-control improvement was the highest in the group with activities related to meditation/religious participation.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prisoners' highest satisfaction score was found through participating in the ground leisure activities, followed by watching a movie and meditation/religious participation.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 prisoner'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leisure activities at the correctional facility was positively influencing their psychological behavior and wellbeing compared to discipline oriented lectures and educations.

**Key words** : Leisure program, Violence inclination, Social skills-cultivation, Self-control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1012948).

\*\* 동국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e-mail: jkpark85@dongguk.ac.kr

## I. 서론

최근 우리사회는 가족기능의 약화, 유흥문화, 일탈과 비행, 물질주의의 팽배, 높은 실업률, 빈부격차 등으로 인해 범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김혁·정용곤, 2017). 교도소(矯導所)의 주된 기능은 '수형자'(징역형, 금고형, 노역장 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자)를 격리시켜 재차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화하는데 있다. 하지만, 재소자들은 처벌 그 자체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다 한 것으로 합리화하고, 또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진다(배임호·김우수·하태선, 2011).

나아가 일부 재소자들은 자기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모든 탓을 사회나 환경 탓으로 돌리고, 심한 피해의식과 자책감을 느끼면서, 고립된 교도소 생활 속 스트레스를 해소치 못해 수용기간 중에 난폭 행위 등으로 다른 재소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수감생활 속 무료함을 오히려 범법행위를 습득해 모방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들이 발생하고 있다. 높은 재범율은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교도소 수용생활 중에 내재된 폭력충동과 심리적 불안정한 상태에서 갈등상황을 해결해 낼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의 부족, 그리고 자기통제력의 부족을 해소시켜주지 못하는 교정훈육 방식에도 나름 책임이 있을 것이다.

교도소 여가활동의 참여는 폭력성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심상신·박선기, 2001),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하는 마음을 형성시켜, 재소자간에 사회적 기술을 함양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타인을 괴롭히지 않는 자기통제력의 함양에도 도움을 주어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Toch, 1993).

지금까지 여가레크리에이션 연구의 대부분은 장애인(강미정, 1998)과 노인(이연숙, 2008), 외국인 다문화 노동자(홍상태, 1995), 그리고 비행청소년(박영신·김의철·탁수연, 2006; 최영신, 2000) 등을 중심으로 교정활동들이 신체

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또한 교정학 연구도 대부분 재범방지와 사회적응력의 향상(심상신·박선기, 2001), 교도소 수형자의 성격특성과 정신건강(이철호·이민규, 2006), 교정교육(민경화, 1996; 신양균, 1994; 이영근, 2001)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여가활동이 재소자의 폭력성향의 감소, 사회적 기술의 강화, 사회복귀 후 개인의 자기통제 능력을 함양 등에 있어서 긍정적 교정효과를 설명한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교정시설, 특히 교도소의 여가프로그램을 통해 분노조절 및 긍정적 심리효과를 규명하는 것은 여가(교정)복지 측면에서 관광학 학문분야의 영역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첫째, 여가활동 참여자와 비참여자간 폭력성향의 감소, 사회적 기술의 함양, 자기통제력의 향상에 있어서 차이를 규명하고, 둘째, 교정프로그램(교화/교정활동과 여가활동)의 마음상처 치유효과를 범죄유형별로 살펴보고, 셋째, 내재된 폭력성향별 자유시간의 주된 활동의 차이, 넷째, 여가활동의 긍정적 정서함양의 세부적 효과, 넷째, 여가활동의 폭력성향, 사회적 기술, 자기통제력에 있어서 효과, 마지막으로 여가활동별 여가만족도의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교정시설이 단순히 범죄자 구금시설이 아니라, 여가활동의 중재적 기능을 밝혀 행복한 재소자 여가복지 교정정책의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고찰

### 1. 교도소의 여가활동에 관한 선행연구

교도소의 재소자들은 폐쇄된 공간인 구금시설 안에서 먹고, 일하고, 쉬고, 자는 일상사의 모든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신상철, 2000). 여가활동

은 제한적으로 행해지는 TV시청과 신문열독 외에 독서활동, 종교생활을 통해 이루어진다(김효정, 2004). 주로 정신교화와 기초적인 체력유지 차원의 소극적인 운동시간과 주말 종교 활동이 주된 여가활동으로 구분된다. 청소년 보호시설의 여가활동도 선행연구에 따르면 휴식( $m=2.93$ ), 관람감상( $m=2.60$ ), 취미교양( $m=2.36$ ), 스포츠( $m=2.31$ ), 놀이오락( $m=1.82$ )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다(이성훈, 2004). 군 기결 수형자의 여가시간 처우현황에 따르면, 여가시간 자체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서보균, 2008). 또한 수형생활 중 가장 불편한 점으로 가족관계의 단절이 18.2%인 반면, 낙후된 교정시설(18.6%)의 비율도 높은 편이다(최창호, 2007).

교정행정에 따르면 형 확정 후 수형생활 중 종교생활, 학교교육, 직업훈련, 가족만남의 날, TV시청, 신문구독 및 의료처우들이 제공되나(www.corrections.go.kr), 교도소의 여가활동은 시간 때우기 위주의 획일적인 여가활동, 훈육 교육을 통한 인성강화의 강요에 그치고 있다. 체육활동은 교도소 내의 운동장 시설이 좁기 때문에 운동시간은 30분으로 제한되며, 재소자에게 적합한 운동기구 역시 없어 대부분의 재소자들은 운동장에 모여 잡담을 하며, 일부는 운동장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재소자들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인해 이들은 TV 시청을 주된 여가활동으로 여기고 있다.

최근 교정시설에서 음악, 미술 등 체험형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도입해 합창, 미술, 웃음, 원예, 요가, 연극 등 수용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여가활동은 자아존중감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 또한 그림, 서예, 공예 등의 작품을 제작해 전국 교정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며, 재소자들의 문예,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교도소의 여가활동은 도자기 공예, 금속공예, 가죽공예 등과 같은 예술과 공예, TV시청, 라디오 청취 등

과 같은 오락, 문학 활동, 악기 연주 등 음악활동, 정원 가꾸기 등 야외활동, 축구, 족구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에는 예산지원, 열악한 시설현황에 노출되어져 있다. 생활체육시설도 10명 내외의 인원이 맨손체조나 걷기운동 중심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즐거움과 운동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종구, 2009).

상상력이 말살된 재소자들은 이후 사회에 복귀해서도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모른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유를 거부하고 자유의 가치를 비웃으며, 돈만 있으면 알아서 해주는 알파하고 쾌락적이며 상업적인 유흥에 빠져들게 된다(박상규, 2007). 결국 이러한 생활의 연속은 막대한 금전이 요구되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이들을 재범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변보기·강석기, 2002).

교도소의 재소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TV시청, 라디오청취, 신문 등 열람, 종교활동, 음악, 미술, 원예 등 여가활동이 주는 긍정적 효과측정, 체험형 문화예술프로그램, 문예, 창작활동 등의 기초적인 “교육교화”에 “여가활동”을 결합해 범죄자를 처벌하기 보다는 종교, 교육, 심리적 카운슬링, 직업훈련과 의학적 치료를 통하여 범죄자의 심리적 성향을 근본적으로 치료함이 요구된다(Hewitt, 1970).

교도소의 여가시설은 비록 열악하지만, 사물놀이반, 합창반, 도자기반 등 교정시설 여건에 맞추어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재소자들의 폭력성향의 감소, 사회적 기술함양, 자기통제력의 함양 등에 있어서 기존 “교육/교화” 프로그램에 비해 재소자들의 수감기간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재사회화 교정/교화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음악, 미술, 연극, 연주, 창작, 체육, 독서, 서예 등 학과·기술 교육 및 작업, 종교 활동 등의 여가활동을 통해 자유시간을 자신의 성격과 취향을 반영하여 자율

적으로 계획, 실천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Frye & Peter, 1972).

## 2. 여가활동의 폭력성향의 감소, 사회적 기술함양, 자기통제력 효과

현행 교도소의 훈육방식은 재소자들의 범죄원인을 규명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정상화시키고자, 이들을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하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치중하여야 한다. 재범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정행정이 우선시되어야 하나, 아직도 교정행정의 담론은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가? 또한 어떤 형벌이 범죄자에게 가해져야 하는가? 등 범행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질의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강예선·배임호, 2016).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소자들은 잘못을 반성보다는 심한 피해의식과 자책감을 느끼면서 내재된 폭력성향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도소의 교화활동에 대해 범죄자들이 갱생할 수 있는 장소보다는 범죄를 위한 학교(Pardeck, 1998), 교도소가 인간을 가두어 두는 장소라고도 한다(이남희·이봉건, 2009). 이러한 주장들은 교도소가 타락한 인간들을 모아둔 창고일 뿐이라고 말해 교정/교화프로그램이 폭력성향의 감소, 사회적 기술함양, 자기통제력의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에는 아직 우리 현실이 상당히 뒤쳐져 있다.

기존 훈육위주의 교화프로그램은 수용자들에게 내재된 폭력충동과 사회부적응, 일탈성, 반사회적 행동 등의 불안감의 해소, 사회적 갈등의 해소, 그리고 자아 존중감 향상을 통해 타인을 괴롭히지 않는 자기통제력의 향상 등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죄책감으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회복적인 교정정책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교도소의 여가활동은 폐쇄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을 가진 재소자의 억눌린 감정을 표출시킴과 동

시에 상대방의 감정 표출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나아가 사회성을 길러주는 효과가 있다.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자기통제력을 키운다면 규정된 일과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마저 가지게 할 수 있다.

여가활동은 재소자들의 사회적 박탈감(social deprivation)을 없애주어 폭력성향을 줄여 줄 수 있다. 또한 죄책감과 규칙위반 행위를 억제 혹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이타적인 행위도 촉진시킨다(강미정, 1998; 김은정, 2016).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여가활동은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금지되어진 사회구성원들에게 여가기술과 태도, 체력향상 등 기분전환으로 용기를 줄 수 있는 공공적 서비스로 접근하였다(고동우, 2008; 권장욱·이훈, 2015; Frye & Peters, 1972). 따라서 일반 사회와 격리되어 자유가 제한된 불안정한 정서 상태에 있는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우울하고 불안한 내면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여가활동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여가활동을 통해서 재소자들의 쌓인 스트레스와 공격적 성향을 줄일 수 있다면 재소자들의 생활적응을 돕고, 나아가 재범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서경아, 1996). 여가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낙인감의 회색도 가능하다(홍봉선·남미애, 2000). 주위로부터 사회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면 사회의 쓸모없는 사회구성원으로 취급되면서 재범이나 심각한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 잘못을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주변의 용서와 화해로 기존의 관계 속에 통합될 수 있다면 재비행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여가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지지를 얻을수록 사회적 낙인감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유광민·김남조; 2010; 최영신, 2000).

결국 교도소 여가활동을 통해 재소자들의 쌓인 폭력성향과 재소자들의 생활적응을 돕고, 나

아가 재범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서경아, 1996). 여가활동을 통해 짜증을 해소해 공격적 성향과 스트레스와 밀접히 연관된다. 재소자의 분노, 죄책감 등의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분노를 적절히 조절하고 죄책감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스트레스 해소는 재소자들의 심리적 상상력을 향상시킨다. 상상력이 부재한 인간은 자유시간에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며, 결국은 가장 소극적인 활동인 '잠'으로 그 시간을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부담스러움을 해소하려 한다(고동우·정소정, 2015; 지명원·조태영, 2012).

본 연구는 교도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가활동(수용자의 생활 중 휴식, 수용자 작업, 교육, 특별활동, 음악활동, 독서활동, 미술활동, 문화예술행사 등)을 통해 재소자가 교도소 내에서 폭력성향을 줄이며, 다른 수형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습득, 협동과 자기주장, 대화와 양보 외에 자기통제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교도소의 여가활동이 폭력성향의 감소, 사회적 기술의 함양, 자기통제력의 향상 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기존 선행연구들에 마찬가지로 여가활동의 참여는 재소자들의 폭력성향을 줄이고, 다른 사람과 협동과 대화와 양보 등 사회적 기술의 강화, 사회복귀 후 새로운 환경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기통제 능력을 함양 등에 효과적일지를 비참여자와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여가활동은 종교활동, 상담활동과 마찬가지로

타인으로부터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당하거나 모욕을 당했을 때, 동료의식을 회복시켜 더 이상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방어하고 모욕에 대해 보복하고자 하는 충동을 줄일 수 있다(이철호·이민규, 2006). 범죄유형별 여가활동을 다른 교정/교화프로그램과 비교해 마음상처의 치유에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재소자들은 자유의 박탈이 순간의 고통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여가시간을 충실히 보낼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켜야 하나, 여흥과 오락의 수단으로만 활용될 수도 있다. 실제로 자신보다 더 폭력적인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비인간적인 환경과 자존심이 손상되는 대우를 통해 여가활동을 잡담, 유희 등 장래생각, 기타 등에 소모할 수도 있기에 폭력성향별 주된 여가활동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폭력성향, 사회적 기술,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각종 여가활동들이 효과는 각 여가활동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여가활동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공산이 높기는 하지만 명상활동, 종교활동, 책읽기, 문예창작 활동 등 혼자 하는 여가활동들은 자기정체성의 확인과 자기통제력의 향상 등에 효과적일 것이다(홍성열, 2002). 반면, 단체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 공동으로 미술품의 제작, 단체로 합창연습 및 연극제작 등은 동료 간 인간관계의 향상 및 협동심(박천재, 2001) 등 사회적 기술의 향상에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미있고, 흥미로운 여가, 즉 교도소의 신체활동, 취미활동, 교양활동 등이 여가시간에 제공된다면 격리된 공간상에서 겪는 심리적 짜증과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교도소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즉 작업시간 외에 여가활동은 휴식시간의 재미와 흥미부여(유태균·이승철, 2002), 여가활동으로 인한 우울증의 해결(박천재, 2001), 자아존중감의 향상(강미정, 1998) 등을 통해 수용생활 중 스트레스, 불안

감을 해소시켜 수용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여가활동 참여여부의 그룹(참여자과 비참여자)간 폭력성향의 감소, 사회적 기술의 함양, 자기통제력의 향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 가설 2. 교정프로그램 유형(교화/교정활동과 여가활동)별 마음상처의 치유에 있어서 효과는 범포유형별로 다르다.
- 가설 3. 폭력성향별 자유시간의 주된 활동은 차이가 있다.
- 가설 4. 여가활동의 긍정적 정서함양에 있어서 효과는 차이가 있다.
- 가설 5. 여가활동의 폭력성향, 사회적 기술, 자기통제력에 있어서 효과는 차이가 있다.
- 가설 6. 여가활동의 여가만족도의 영향정도는 차이가 있다.

## 2. 측정항목의 도출

본 연구에서 교도소의 여가활동이란 '일과활동(식사와 수면 등 기본적 신체유지에 필요한 활

동) 외에 작업이나 교육이 없는 자유시간과 휴식 시간에 행해지는 활동'으로 정의된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여가활동(예: 특별활동, 음악 감상, 독서활동, 서예활동, TV 감상, 운동 등) 외에도 종교활동과 재소자들이 출소 후 사회재적응(취/창업 등)을 위해 교도소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컴퓨터, 어학공부, 자격증 획득교육(취업관련), 개별상담까지 포괄한다. 이러한 여가활동들은 각종 여가프로그램(문화체육관광부, 2016)의 여가활동 유형 및 활동 내용을 교도소 교화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들(김효정, 2004; 이철호·이민규, 2007)을 토대로 교도소의 여가활동의 효과라는 주제로 관련전문가(교도행정책임자 1인(사무관급), 사회복지사 2인 외에 교정교화 자문위원 2인(교정복지 전공교수 1명과 청소년선도위원 1명))들과 2차례 자문과 협의과정에서 재조정되었다.

교도소의 여가활동은 1. 스포츠부문(족구, 농구, 축구, 탁구 등), 2. 취미·교양부문(문예활동, 노래부르기, 서예, 그림 등), 3. 관람·감상부문(영화, 스포츠관람, TV시청 등), 4. 사교부문(종교활동에서 친구사귀기), 5. 놀이·오락부문(바둑, 당구, 만화 등), 6. 휴식 부문(편한 휴식, 아무 것도 하지 않음 등)으로 구분해 이들

〈표 1〉 교도소 여가활동 유형 및 활동

여가활동 유형 및 활동 내용	교도소 상황에 적합하게 변형해 사용
1. 스포츠부문(조깅, 체조, 농구, 스키, 태권도, 테니스 등)	스포츠 부문(족구, 농구, 축구, 탁구 등)
2. 취미·교양부문(문예활동, 노래 부르기, 서예, 그림 등)	취미·교양부문(도자기공예, 미술, 서예, 그림 등)
3. 관람·감상부문(영화, 음악회, 스포츠관람, TV시청 등)	관람/청취(TV시청, 라디오 청취 등)
4. 사교부문(친지·친구방문, 종교, 사회봉사활동)	사교부문(종교활동에서 친구사귀기)
5. 관광·행락부문(유원지, 소풍, 고궁, 국내여행, 놀이터 등)	삭제 후 악기연주(국악기) 등 음악활동, 정원 가꾸기 등 자연과 화훼 가꾸기 활동 등으로 대체
6. 놀이·오락부문(바둑, 전자오락, 당구, 만화 등)	놀이/오락부문(바둑, 당구, 책읽기 등)
7. 기타 휴식 부문(명상, 낮잠, 낙서, 목욕 등)	휴식(편안한 휴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의 여가활동 유형 및 활동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 제작성.

여가활동이 주는 긍정적 효과(폭력 충동감소, 사회기술 함양, 자기통제 능력 향상 등)를 7점 리커트(1=거의 효과 없음, 4=보통임, 7=매우 효과 높음)로 측정하였다.

재소자들의 폭력성향은 교도소내의 불쾌한 상황에서 냉소, 분노, 짜증, 공격성 등의 감정들을 통해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으로 조작적 정의되었다(Vasta & Miller, 1992). 주된 항목은 나는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들을 위협이나 협박을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다른 재소자들을 이유 없이 구박하고 싶지 않다 등의 서수균·권석만(2002)의 연구척도를 활용해 재가공하였다.

교도소의 사회적 기술함양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능력(이철호·이민규, 2007)으로 정의된다. 측정항목(나는 나를 못살게 구는 다른 재소자들과 싸우지 않으면서도 잘 지내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나는 다른 재소자와 의견이 다를 경우 다투지 않고 대화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남과 수용생활을 잘 어울리게 하였다)들은 김기영·김춘경(2003)의 척도를 참조하였으며, 자기통제 항목(화가 날 때 나는 잠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참게 된다; 나를 놀리거나 괴롭힌다면, 침착하려고 애쓴다)은 박현수(2012)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7점)라는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여가만족도는 여가활동 및 종교활동, 재소자들이 출소 후 사회재적응(취/창업 등)을 위해 교도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컴퓨터, 어학 공부, 자격증 획득교육(취업관련), 개별상담 등을 제공할 때 느껴지는 교도소 여가만족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조사는 경북의 P지역, G지역의 교도소의 재소자를 대상으로 일과시간 외(휴일, 일과를 마친 자유시간)에 제공되는 각종 여가활동들이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교정본부의 사전허락 아래 인권침해를 없애기 위해 희망자에 한해서 설문조사가 수행되었다. P교도소의 경우 정보처리반, 컴퓨터 그래픽스반, 정보처리 산업기사반 등 컴퓨터 관련 학과 및 도자기 공예, 미장, 창조, 화훼재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G교도소의 경우 사물놀이, 농악반, 클래식기타반, 대금반 등을 비롯해 교도소에서 서예, 악대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어 여가활동의 효과를 살펴보기에 적합한 편이다.

설문조사는 2015년 3월 14일부터 3월 22일 동안 평일 및 주말을 활용해서 편의추출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총 18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최종적으로 유효표본 160부를 회수(88.9%)하였다. 설문 시에는 재소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솔직히 개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익명보장과 설문장소를 수용자 종교집회, 취/창업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강의동에서 교도관의 퇴실 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교도소 여가활동의 폭력성향, 사회적 기술, 자기통제력의 차이 등의 효과 및 영향요인 등을 SPSS(version 20)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여가활동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 비교는 t 검증, 주된 여가활동의 유형(독서/편지쓰기, TV시청, 학습, 명상활동, 취미활동)별 긍정적 정서함양(폭력성향, 사회적 기술,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효과차이와 범죄유형별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마음상처 치유는 일원변량분석(ANOVA) 등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각종 여가활동별 교도소내의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응답자(N=160)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응답자가 남성이며, 연령층이 40대가 70명(43.8%)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대졸자는 67명(41.8%), 결혼여부는 기혼자 69명(43.2%), 종교는 종교 없음이 50명(31.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남성의 중년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여성만을 전담하는 교도소(청주 여자교도소)와 '12~20세 미만인 비행청소년들은 청소년소년원에서 별도 수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표 2> 참조).

### 2. 가설검정 결과

#### 1) 여가활동의 참여여부별 폭력성향, 사회적 기술, 자기통제력의 차이

가설 1의 여가활동의 참여여부에 따른 그룹(참여자와 비참여자)간 폭력성향의 감소, 사회적 기술의 함양, 자기통제력의 향상 등에 있어서 차이를 t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사회적 기술의 함양에만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 $t = 12.024$ ,  $p < .000$ )가 나타났다(<표 3> 참조).

교도소 내의 각종 여가활동(문예, 명상/종교, 운동(공놀이, 철봉운동, 근력운동), 음악/채소가꾸기 등)에 참여한 그룹이 사회적 기술의 함양에 있어서 도움여부( $m = 4.15$ ,  $sd = 1.078$ )가 비참여그룹( $m = 3.25$ ,  $sd = 1.026$ ) 보다 높았

<표 2> 조사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비율(%)	변인	구분	빈도	비율(%)
연령	10대	-	-	결혼 상태	미혼	49	30.6
	20대	22	13.8		기혼	69	43.2
	30대	42	26.2		이혼	28	17.5
	40대	70	43.8		동거, 사별 등	14	8.7
	50대	19	11.9				
	60대 이상	7	4.3				
학력	초등학교	5	3.1	종교	기독교	38	23.7
	중학교	19	11.8		불교	44	27.5
	고등학교	69	43.3		천주교	22	13.7
	대학교	67	41.8		종교 없음	50	31.4
합계	160		기타		6	3.7	

주: 각 수치는 결측치를 제외한 수치임.

<표 3> 여가활동 참여여부의 그룹간 긍정적 정서효과 차이

변수	여가활동 비참여자(52)		여가활동 참여자(n=108)		t값(p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폭력성향의 감소	3.03	1.055	2.60	1.342	.861(.392)
사회적 기술의 함양	3.25	1.026	4.15	1.078	12.024(.000*)
자기통제력의 향상	3.20	1.304	3.39	1.037	.387(.700)

주: \* $p < .05$  수준에서 유의함.

다. 조사응답자들의 폭력성향의 감소는 여가참여 자-여가비참여자 그룹( $m_1-m_2=0.43$ ), 자기통제력의 여가참여자( $n=108$ )-여가비참여자( $n=52$ ) 그룹( $m_1-m_2=0.19$ )간 차이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화나면 욕하는 감정'과 '힘든 일에 포기 않고 참아냄' 항목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또한 '화가 날 때 나는 잠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참게 된다'는 자기통제력의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정활동들은 교육과 근로와 직업훈련 중점에서 특별활동, 음악감상, 독서활동, 서예활동, TV 감상, 운동 등을 확대한다면 재소자들의 폭력성향, 사회적 기술, 자기통제력에 효과적일 것이다.

## 2) 범죄유형별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마음상처 치유의 효과 차이

가설 2의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교정/교화 프로그램들(정신교육, 학과교육, 종교교화, 교화강연 등)과 여가활동을 구분하여 재소자들

의 마음상처의 치유에 도움이 되는지를 범죄유형별로 차이를 일원변량분석(ANOVA)으로 살펴본 결과, 3개 항목(정서교육, 봉사활동, 교화강연)에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4> 참조).

정서교육( $F=2.465, p=.025$ )은 강도강간( $m=6.44$ ), 사기 및 횡령( $m=5.36$ ), 기타( $m=5.11$ ) 등이 상처 난 마음치유에, 봉사활동( $F=2.206, p=.043$ )은 강도강간( $m=6.22$ ), 절도( $m=5.83$ ), 기타( $m=5.03$ ) 등에, 교화강연( $F=2.918, p=.009$ )은 강도강간( $m=6.33$ ), 절도( $m=5.00$ ), 폭력( $m=4.67$ ) 등의 범죄유형에 있어서 사회적 원망을 줄이고 상처 난 마음치유에 있어서 효과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교정/교화프로그램 중 '상처 난 마음치유의 효과'가 높은 활동은 '종교활동'( $m=5.54$ ) > '개별상담'( $m=5.51$ ) > '여가활동'( $m=5.49$ )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교육'과 '교화강연' 등에서 이루어지는 '참되게 사는 길', '갱생성공의 사례'들은 재소자들에게 훈육위주의 교육으로 심리적 거

<표 4> 범죄유형별 교정/교화프로그램이 마음상처 치유의 효과차이

범죄유형 구분	교도소 내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여가활동의 비교								
	여가 활동	정신 교육	학과 교육	직업 교육	개별 상담	종교 생활	정서 교육	봉사 활동	교화 강연
절도	5.33	4.17	3.83	4.83	5.33	6.00	5.17	5.83	5.00
폭력(상해 등 포함)	6.00	4.00	3.67	5.00	6.00	5.33	4.17	4.67	4.67
사기 및 횡령	5.63	4.64	3.93	4.50	5.64	4.93	5.36	5.00	4.64
강도(준강도 등 포함)	4.80	3.40	4.80	4.60	4.80	5.00	3.40	3.40	3.00
강도강간	5.78	4.78	5.89	5.89	5.78	6.33	6.44	6.22	6.33
과실범	4.60	3.60	4.40	4.40	4.60	4.80	4.40	4.80	2.80
기타	5.60	4.42	4.64	5.18	5.61	5.82	5.33	5.03	4.61
평균값	5.49	4.22	4.42	5.08	5.51	5.54	5.11	4.95	4.65
통계치 F(p)값	.456 (.863)	.879 (.527)	1.894 (.082)	1.167 (.331)	.456 (.863)	1.337 (.245)	2.465 (.025*)	2.206 (.043*)	2.918 (.009*)

주: \* $p<.05$  수준에서 유의함.

부감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 3)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른 내재적 폭력성의 차이

가설 3은 재조사자들의 내재적 폭력성에 따라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주된 활동(독서, 잡담, 장래생각, 기타)에 대해 일원변량분석(ANOVA)으로 살펴본 결과, 2개 항목(충동성향, 학대성향)에서  $p < .05$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5〉 참조).

첫째, 욕하는 충동성향을 가진 그룹은 자유시간에 장래생각( $m=2.70$ ), 잡담( $m=2.67$ ), 가

족생각( $m=2.27$ ), 독서/편지쓰기( $m=1.60$ ) 등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둘째, 학대성향이 있는 그룹도 잡담( $m=2.50$ ), 장래생각( $m=2.00$ ), 독서/편지쓰기( $m=1.40$ ), 가족생각( $m=1.18$ )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 4) 여가활동의 유형별 긍정적 정서함양의 효과 차이

가설 4의 교도소의 자유시간에 행해지는 주된 여가활동의 유형(독서/편지쓰기, TV시청, 자격증 취득 등 학습활동, 명상/종교활동, 여가활동(문예, 화초가꾸기, 운동활동 등 취미활동)별 긍

〈표 5〉 내재된 폭력성에 따른 주된 활동에 대한 인식

항목	통계값		자유시간 주된 활동				통계치	
			독서	잡담	장래생각	가족생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평균	평균	평균	F값	p값
나는 내성적이고 고지식하거나 융통성이 없다	2.72	1.645	2.81	3.17	2.30	2.82	.638	.593
나는 가정의 폭력상황 목격하였다	2.49	1.477	2.33	3.67	2.45	2.64	1.518	.216
나는 충동성(욕하는 심정)이 있다	3.21	1.787	3.29	3.17	2.90	3.45	.296	.828
나는 알코올 의존하였다	1.76	1.461	1.77	2.00	1.85	1.45	.234	.873
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표현 안하다가 분노로 표출한다	2.02	1.603	1.60	2.67	2.70	2.27	2.871	.041*
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3.84	2.303	3.79	4.33	3.25	4.82	1.206	.313
나는 부모, 형제로부터 차별 받고 자랐다	2.01	1.796	1.77	2.00	2.50	2.18	.808	.493
나는 잔소리나 비난을 싫어한다	3.87	1.944	3.96	4.50	3.30	4.18	.907	.441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2.01	1.637	1.83	2.00	2.45	2.00	.660	.579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2.24	1.601	2.02	2.50	2.70	2.18	.905	.443
나는 지금 당장 이익이 되면 나중에 손해를 보더라도 한다	2.33	1.621	2.02	2.33	3.05	2.36	1.964	.126
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긴다	2.49	1.823	2.58	2.17	2.45	2.36	.122	.947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1.59	1.266	1.40	2.50	2.00	1.18	2.636	.055*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2.55	1.961	2.33	2.17	2.70	3.45	1.095	.356

주: \* $p < .05$  수준에서 유의함.

정적 정서함양(폭력성향, 사회적 기술,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효과차이를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4개 항목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6〉 참조).

첫째, 교도소의 여가활동 중 '여가활동'(m=5.50)과 명상/종교활동(m=4.23)이 다른 재소자들을 위협이나 겁을 주고 싶지 않다(F=2.729,  $p < .035$ )라는 폭력성향의 감소, 둘째, 재소자들을 이유 없이 구박하고 싶지 않다(F=3.036,  $p < .022$ )가 줄었다는 항목에는 TV시청(m=4.79), '여가활동'(m=4.46) 순으로, 셋째, 재소자와 의견이 다를 경우 대화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F=2.575,  $p < .044$ ) 하는데 있어서 '여가활동'(m=4.00)과 '명상/종교활동'(m=4.00)이 동일하게 높은 효과가 있었다.

넷째, 남과 수용생활을 잘 어울리게 하는데(F=2.575,  $p < .044$ ) 있어서 '여가활동'(m=4.75)과 '학습활동'(m=4.63)이 가장 높은 긍정적 정서효과를 보였다. 특히 '여가활동'은 재소자들이

'화를 낮추는' 분노조절 외에도 '다른 재소자들과 수용생활에 갈등과 마찰 없이 서로 잘 어울리게 하는데' 있어서 높은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선행연구(박종구, 2009)와 동일하게 재소자들의 분노조절과 사회적 함양에 음악활동, 독서활동, 미술활동, 문화예술 등이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이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이해·공감 증진에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과 동일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 5) 여가활동이 주는 폭력성향, 사회적 기술, 자기통제력의 효과차이

가설 5의 교도소에서 행해지는 각종 여가활동의 유형별 폭력성향, 사회적 기술, 자기통제력에 있어서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세부 여가활동별 평균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 참조). 첫째, 교도소에서 시행중인 각종 여가활동 중 교도소의 '명상활동/종교활동'(m=4.60), '운동장 달리기'(공놀이, 철봉운동, 근력운동)'(m=4.50),

〈표 6〉 교도소의 자유시간중 여가활동별의 긍정적 정서효과 차이

항목	자유시간에 주된 여가활동의 유형					F값	p값	
	독서/ 편지쓰기	TV시청	학습활동 (자격증)	명상/ 종교활동	여가 활동			
폭력 성향 감소	다른 재소자들을 위협이나 겁을 주고 싶지 않다	2.00	4.15	4.16	4.23	5.50	2.729	.035*
	재소자들을 이유 없이 구박하고 싶지 않다	2.17	4.79	4.00	4.37	4.46	3.036	.022*
사회 기술 함양	재소자들과 싸우지 않으면서도 잘 지내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2.17	4.04	4.16	3.90	5.48	2.309	.065
	재소자와 의견이 다를 경우 대화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1.67	3.92	3.89	4.00	4.00	2.575	.044*
	남과 수용생활을 잘 어울리게 하는데	3.33	4.31	4.63	4.10	4.75	2.575	.044*
자기 통제력 함양	화가 날 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참게 된다	3.83	4.23	4.47	4.30	6.00	.909	.463
	피롭힌다면, 침착 하려고 애쓴다	4.33	4.46	4.84	4.17	5.25	.524	.719
	규칙을 잘 지키기 위해 애쓴다	3.83	5.42	6.00	4.63	4.12	.909	.463

주: \* $p < .05$  수준에서 유의함.

‘시, 수필 등 문예활동’(m=4.37) 등이 세상에 대한 화가 나는 것을 막아주는 분노조절 효과가 비교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기술함양에는 ‘운동장 달리기’(공놀이, 철봉운동, 근력운동)(m=5.20) ‘영화상영(TV 시청 포함) 감상’(m=4.44), 명상활동/종교활동(m=4.21) 순이며, 셋째, 자기통제력에는 ‘명상활동/종교활동’(m=4.88), ‘시, 수필 등 문예활동’(m=4.47), ‘책읽기’(m=4.37) 순으로 수용생활 중 쌓이는 감정을 통제하는데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동장 달리기(공놀이, 철봉운동, 근력운동)은 폭력성향 감소(2위) 및 사회적 기술함양(1위)의 두 항목에서 높은 효과가 있었다.

한편, 상대적으로 낮은 순서들은 폭력성향 감소에 ‘컴퓨터, 어학공부’(m=3.91)와 ‘자격증 획득교육’(m=3.94)이 사회적 기술함양에는 ‘책읽기’(m=3.81), ‘수필 등 문예활동’(m=3.86)이, 자기통제력 향상에는 ‘컴퓨터, 어학공부’(m=3.91)와 ‘자격증 획득교육’(m=4.03)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교도소 여가활동이 주는 폭력성

향, 사회적 기술, 자기통제력의 효과차이결과는 ‘시, 수필 등 문예활동’, ‘명상활동/종교활동’, ‘운동장 달리기’ 영화상영(TV 시청 포함) 감상 등이 높아 불안감소와 긴장완화에 효과가 높아 보이나, ‘컴퓨터, 어학공부’, ‘자격증 획득교육’은 출소 후 재취업 위주의 교육중심의 활동은 정서 순화, 마음의 안정,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등에는 효과가 낮지만 오늘날 교정시설의 목적중 하나인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기에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각종 교정/교화 프로그램들 중 ‘시청각 교육’(m=5.65)과 ‘여가활동’(m=5.54) ‘종교지도’(m=5.51) 등이 사회적 원망을 줄이는데 효과가 높았지만 ‘시청각 교육’과 ‘종교지도’는 범죄유형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정신교육’(m=4.22), ‘학과교육’(m=4.42), ‘교화강연’(m=4.65) 등은 타 교정/교화 프로그램에 비해 사회적 원망을 줄이는데 있어서 가장 낮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여가활동별 여가만족도의 영향

가설 6의 각종 여가활동별 교도소 생활의 무

〈표 7〉 여가활동의 폭력성향, 사회적 기술, 자기통제 효과

항목	폭력성향 감소		사회적 기술함양		자기통제력 향상	
	평균(순위)	표준편차	평균(순위)	표준편차	평균(순위)	표준편차
시, 수필 등 문예활동	4.37(3)	1.848	3.86(8)	1.607	4.47(2)	1.609
영화상영(TV 시청 포함) 감상	4.32(4)	1.631	4.44(2)	1.525	4.17(5)	1.501
명상활동/ 종교활동	4.60(1)	1.749	4.21(3)	1.638	4.88(1)	1.728
미술제작 실습(서예실습 포함)	4.10(6)	1.582	4.08(5)	1.397	4.30(4)	1.471
자격증 획득 교육(취업관련)	3.94(8)	1.543	3.88(7)	1.484	4.03(8)	1.409
책읽기(독후감상문 쓰기)	4.08(7)	1.529	3.81(9)	1.494	4.37(3)	1.433
운동장 달리기(공놀이, 철봉운동, 근력운동)	4.50(2)	1.616	5.20(1)	1.674	4.16(7)	1.590
채소가꾸기(화초가꾸기)	4.15(5)	1.544	4.16(4)	1.628	4.17(5)	1.402
컴퓨터, 어학공부	3.91(9)	1.424	4.06(6)	1.471	3.91(9)	1.424

료감을 줄여주어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5개의 변인들이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 $F = 5.179$ ,  $p < .000$ )을 미쳤다 전체 모델식은  $R^2 = .383$ 으로 약 38.3%의 설명력을 지녔다. 각종 교정/교화 프로그램별 교소도 여가만족도에 영향정도는 '운동장 달리기(공놀이, 철봉운동, 근력운동)'( $\beta = .385$ ,  $t = 3.143$ ), '영화상영(TV 시청 포함) 감상'( $\beta = .367$ ,  $t = 2.737$ ), '명상활동/종교활동'( $\beta = .359$ ,  $t = 2.931$ ), '자격증 획득 교육(취업관련)'( $\beta = .271$ ,  $t = 2.132$ ), '채소가꾸기(화초가꾸기)'( $\beta = .246$ ,  $t = 2.017$ ) 순이다(〈표 8〉 참조).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교도소의 운동장에서 축구, 탁구 외에도 흥미가 높으면서 전신 운동효과가 높은 다목적 헬스장과 각종 운동기구를 구비해 즐거움이 가미된 운동 활동(농구, 배구 등 공놀이는 물론이고 에어로빅체조, 댄스스포츠, 조깅 등) 등을 도입하여 여가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높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교도소가 단지 재소자들의 재소기간에 시간을 허비하거나 무료함을 그냥 시간을 죽이는 곳이 아니고, 즐겁고 재미있는 여가활동을 통해 폭력성향의 감소, 사회적 기술의 함양, 자기통제력의 향상 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밝혔다. 주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활동의 참여자들은 사회적 기술의 함양에만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않았지만 여가활동은 폭력성향의 감소(화나면 욕하는 감정)와 자기통제력('화가 날 때 나는 잠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참게 된다)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여가활동을 통해 수용생활의 심리적 불안정한 상태에서 갈등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친화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향상된다는 선행연구와 동일하였다. 즉 여가활동의 참여를 통해 동료 간 인간관계의 향상 및 협동심

〈표 8〉 여가활동별 교도소 여가만족도의 효과영향

항목	교도소 여가만족도				
	B	표준오차	베타	t값	p값
상수	.494	.842		.587	.559
시, 수필 등 문예활동	.230	.129	.238	1.791	.077
영화상영(TV 시청 포함) 감상	.419	.153	.367	2.737	.008*
명상활동/ 종교활동	.387	.132	.359	2.931	.004*
미술제작 실습(서예실습 포함)	.079	.134	.065	.587	.558
자격증 획득 교육(취업관련)	.291	.136	.271	2.132	.036*
책읽기(독후감상문 쓰기)	.107	.156	.086	.684	.496
운동장 달리기(공놀이, 철봉운동, 근력운동)	.409	.130	.385	3.143	.002*
채소가꾸기(화초가꾸기)	.291	.144	.246	2.017	.047*
컴퓨터, 어학공부	.078	.127	.076	.613	.541

$R = .619$ ,  $R^2 = .383$ ,  $F = 5.179$   $p < .000$

주: \* $p < .05$  수준에서 유의함.

등(박천재, 2001)이 높아진다는 기존 연구와 동일하였다.

둘째, 범죄유형별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마음 상처 치유의 효과 차이에 있어서 여가활동은 종교활동, 상담활동과 마찬가지로 자기주도적인 자아-고갈 회복에 효과적임을 나타냈다. 따라서 여가활동이 단지 재소자들의 여흥과 오락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정신수양과 자기치료 효과에 중점을 둔 교정/교화프로그램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높다.

셋째, 육하는 충동성향을 가진 그룹은 자유시간에 장래생각 > 잡담 > 가족생각 독서/편지쓰기 등 폐쇄적 여가활동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둘째, 학대성향이 있는 그룹도 잡담 > 장래생각 > 독서/편지쓰기 > 가족생각 등으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것은 구금이라는 특수 시설에서 오는 한계로 재소자들은 여가시간 및 공간 사용에 대한 제한과 통제로 인해 사회에서 처럼 개인적 취향에 맞는 여가활동을 선택하여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조로운 여가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개발 및 삶의 질 고양을 위하여 다양한 여가활동인 음악, 미술, 연극, 연주, 창작, 체육, 서예 등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여가활동의 유형별 긍정적 정서함양의 효과차이에 있어서 교도소의 여가활동 중 '여가활동'과 명상/종교활동은 폭력성향의 감소, 재소자와 의견이 다를 경우 대화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데 있어서 '여가활동'과 '명상/종교활동'이 동일하게 높은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활동 외에도 교도소 내 목사, 승려, 신부 등 성직자나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종교인을 초빙하여 종교집회, 신앙상담, 자매결연 주선 등 종교생활이 여가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교도소의 '명상활동/종교활동'이 세상에 대한 화가 나는 것을 막아주는 분노조절 효과가 비교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술함양에도 '운동장 달리기'(공놀이, 철봉운동, 근력운동)'이, 자기통제력에는 '명상활동/종교활동'이 가장 효과가 높았다. 다만 건전한 국민정신을 계도하기 위한 의식구조 개선 및 범죄적 악성 제거로 자력개선 의지를 촉진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훈육중심의 '정신교육'과 '교화강연' 활동은 미미한 효과를 지녀 앞으로 여가 복지를 통한 교육/교화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종 여가활동별 교도소 생활의 무료감을 줄여주어 여가만족도는 운동장 달리기(공놀이, 철봉운동, 근력운동) > 영화상영(TV 시청 포함) 감상 > 명상활동/종교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운동장에서 축구, 탁구 외에도 흥미가 높으면서 전신 운동효과가 높은 다목적 헬스장과 각종 운동기구를 구비해 즐거움이 가미된 운동 활동(농구, 배구 등 공놀이는 물론이고 에어로빅체조, 댄스스포츠, 조깅 등) 등을 도입하여 여가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여가만족도는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폭력성향의 감소, 사회적 기술의 함양, 자기통제력의 향상 등을 단일항목을 활용해 구성개념들을 측정하였다. 이들 용어들은 다소 추상적이며, 다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향후에는 가급적 다항목(multi-items)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때에는 여러 항목들을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을 통해 기초분석을 실시하지 못한 것은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통계적 분석방법으로 초범과 재범이상, 그리고 재소자들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대한 공변량 분석을 통해 여가활동 외의 타 외생변수들의 영향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 추후연구는 여가 프로그램의 효과를 출소 후 재소자들의 생애연구, 추적연구, 장기간의 종적(縱的) 연구를 병행하여 교도소 밖의 사회적 환경여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음악, 원예, 연극공연, 미술치료 등 각종 세부적인 여가치유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을 지속하여 각 여가치유 효과를 실질

적으로 밝히는 후속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미정(1998).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정신 질환자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미발행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강예선 · 배임호(2016). 청소년범죄에 대한 재범방지 와 예방을 위한 교정복지 연구: 회복적 사법정의 관점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7(2), 79-100.

고동우(2008). 여가활동 일치유형에 따른 여가태도 와 여가경험의 차이 비교. 『관광학연구』, 32(1), 293-314.

고동우 · 정소정(2015).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본 진 지한 여가활동과 가벼운 여가활동의 비교. 『관광학연구』, 39(10), 217-237.

교정본부 홈페이지(2016). <http://www.corrections.go.kr>

권장옥 · 이훈(2015). 자기성찰적 여가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관광학연구』, 39(6), 149-161.

김기영 · 김준경(2003). 사회적 기술 증진 프로그램 이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한국아동복지학』, 16, 7-36.

김은정(2016). 베이비붐세대의 여가활동유형과 자 원봉사활동이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연 구. 『관광학연구』, 40(6), 227-245.

김효정(2004). 『문화적인 교정시설 조성방안 연구』 (보고서 2004-04).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 연구원.

김혁 · 정용곤(2017).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 찰의 회복적 사법제도 도입방안 연구』. 세종 시: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2016).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민경화(1996). 『교정교육 제도에 관한 연구』. 미발 행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박상규(2007). 교도소에 수용중인 비행청소년에 대 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효과. 『한국심리학회』, 21(3), 1-12.

박영신 · 김의철 · 탁수연(2006).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 비교: 도덕적 이탈, 자기효능감, 가출,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2(2), 45-76.

박종구(2009). 교도소 여가활동의 사회적 적대감 및 스트레스 해소효과. 『관광학연구』, 33(7), 269-289.

박현수(2012). 자기통제의 안정성과 낮은 자기통제 수준에서 상황적 요인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 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23(1), 385-418.

박천재(2001). 여가, 레크리에이션: 여가 참여 자유 도와 여가 활동 동료의식이 인지된 스트레 스와 우울증에 미치는 상호작용 연구. 『한국 체육학회지』, 40(3), 299-308.

배임호 · 김용수 · 하태선(2011). 소년 범죄자를 위 한 교정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51, 229-251.

변보기 · 강석기(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적 대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9(3), 269-291.

서경아(1996). 『적극적인 음악치료프로그램이 비행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 미발 행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서보균(2008). 『군수형자에 대한 분류처우의 문제 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미발행석사학 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수균 · 권석만(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 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1(2), 478-500.

신상철(2000). 수형자 사회복귀의 효율적 발전방향. 『교정문집』, 1, 568-578.

신양균(1994). 『미결수용자 처우에 대한 연구』. 서 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심상신 · 박선기(2001). 개방교도소 재소자들의 치 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과 사회적응력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0(2), 297-506.

유광민 · 김남조(2010). 노인들의 여가활동참여에 있어서의 노인여가역량에 대한 탐색적 연 구. 『관광학연구』, 34(1), 115-134.

유태균 · 이승철(2002). 개방교도소 재소자들의 교 정레크리에이션 환경만족과 여가몰입, 자아 존중감과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10(1),

- 1-18.
- 이남희·이봉건(2009). 비행청소년의 범죄유형에 따른 재범 위험성 차이에 관한 연구: 비행측 주요인 조사서와 PAI 검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23(2), 127-140.
- 이성훈(2004). 『보호시설 청소년의 여과활동 유형과 여가만족도』. 미발행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이연숙(2008). 『노인의 여가스포츠 활동참가와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우울증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1(2), 343-364.
- 이영근(2001). 수형자 직업훈련에 관한 발전방안. 『교정연구』, 13, 187-206.
- 이철호·이민규(2006). 교도소 수형자의 성격특성과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20(1), 77-90.
- 지명원·조태영(2012). 청소년의 여과활동이 여가만족, 자아존중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6(6), 145-165.
- 최영신(2000). 『비행청소년의 학교 재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창호(2007). 『인본주의적 교정복지의 방법과 전략: 노인수형자 실태를 중심으로』. 미발행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8). 『피보호감호자의 교정처우실태』(보고서 97-03). 서울.
- 홍봉선·남미애(2000). 소년사법 절차상의 처우와 정서적 반응 및 비행교정성과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검·경찰에서의 초기 사법처리 경험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7(1), 195-219.
- 홍상태(1995). 외국인 근로자의 노무관리 및 여가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 산업기술연수생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7(12), 185-199.
- 홍성열(2002). 범죄인의 4가지 공통심리. 『교정연구』, 17, 271-288.
- Frye, S., & Peter, A. (1972). *Therapeutic recreation service*.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Hewitt, J. (1970). *Social stratification and deviant behavior*. New York: Random House.
- Pardeck, J. (1998). Social treatment through an ecological approach.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16(1), 92-104.
- Toch, H (1993). *Violent man: An inquiry in the psychology of violence*.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Vasta, R., Haith, M., & Miller, S. (1992). *Child psychology: The modern scie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2017년 4월 2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7년 4월 17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17년 4월 19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畢